

枕流臺詩社 結成에 대한 試攷

韓 泰 文*

目 次

I. 序 論	3. 枕流臺의 건립시기
II. 枕流臺詩社의 結成	4. 枕流臺詩社의 構成員
1. 名稱의 由來	III. 枕流臺詩社의 文學史的 的의
2. 枕流臺의 位置	I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朝鮮中期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및 商工業의 발전이 가져 온, 서울의 도시적인 성장으로 더욱 성숙된 중인·서리층의 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士大夫가 아닌 中人 이하의 下級身分들이 기존의 사대부가 누렸던 문학형식을 빌어 문학활동을 전개한 것을 일반적으로 ‘委巷文學’이라 하고, 그 중 특히 漢詩의 형태로 표현된 것을 ‘委巷漢詩’라 일컫는다.¹⁾

委巷漢詩에 대한 연구는 具滋均에 의해 처음 시도된 이래 최근에 그 연구가 활발한 편이며, 집단적 시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詩社에 대해서도 成範

* 釜山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課程

1) ‘委巷(閭井, 또는 閭巷)’이란 字義로는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말하는데, 원래는 신분제 사회에서 서민이 모여 사는 마을을 의미했다. 委巷文學에 대해 林熒澤은 ‘사대부문학에 대척되어 이조후기에 형성된 개념으로 우리나라 중세말기의 근대를 창조하기 위한 역사적 운동과정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등장한 것으로 中下層에서 발달한 문학’이라고 정의했다(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11. 10, p. 438)

重의 〈松石園詩社와 그 文學〉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업적이 있으나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委巷漢詩 초창기에 대한 언급보다 全盛期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委巷漢詩의 발생을 17C로, 詩社형성시기는 18C 후반으로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평가도 철저한 작품분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외적인 전개양상에 대한 記述이 많은 까닭에 사대부층 시문의 수용으로 인한 새 장르의 미발견, 작가의식의 모호성, 排律과 같은 長篇의 不在, 의식의 上層同化 등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²⁾

이에 대해 筆者는 拙稿 〈村隱 劉希慶 文學研究〉에서 洪裕孫(1431~1529)으로부터 시작되는 委巷漢詩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발을 하게 된 劉希慶(1545~1636)의 활동시기가 16C말이고, 宣祖 당시에 村隱과 더불어 노닐던 委巷人들을 “風月香徒”라 불렀다는 澤堂 李植의 〈跋〉과 당대의 공경대부들이 村隱의 누각인 枕流臺에 올라 앉아 운을 맞춰 시를 짓고 노래하여 서로 익히기를 다투어 쓴 〈枕流臺詩帖〉이 전한다는 洪世泰의 〈墓誌銘〉의 기록을 들어 이들 風月香徒들의 모임을 ‘枕流臺詩社’로 命名하고, 따라서 委巷漢詩의 발생과 詩社결성시기를 16C말에서 17C초로 소급한 바 있으나,³⁾ ‘枕流臺詩社’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미비와 淺學의 소치로 다음 연구의 몫으로 남겼었다. 本稿는 枕流臺詩社의 본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그 동안 學界에서 枕流臺詩社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具滋均 이래 개론서적인 고찰로 비판없이 수용되어진 枕流臺詩社의 결성시기와 그 구성원을 〈村隱集〉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살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들의 문학세계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의 몫으로 남기겠다.

-
- 2) 詩社에 대한 연구로는 • 具滋均: 韓國平民文學史, 민족문화사 1982. 6. 20. • 成範重: ‘松石園詩社와 그 文學’, 국문학연구 53, 서울대, 1981. • 李康秀: ‘委巷詩人の 天機論’, 송재소 著,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創作과 批語社, 1983. • 千柄植: ‘詩社의 형성과 위향인의 문학활동’, 아주대 논문집 7집, 1984, • 鄭後洙: 朝鮮後期 中人文學 研究, 깊은 샘, 1990. 7. 31 등이 있고 부정적 평가는 • 鄭玉子: ‘朝鮮後期の 文風과 委巷文學’, 韓國史論4, 서울대 국사학과 1978. pp. 265~307의 說이다.
- 3) 韓泰文: 村隱 劉希慶 文學研究.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90. 2. pp. 17~25.

II. 枕流臺詩社의 結成

1. 名稱의 由來

現代의 詩同人과 같은 것으로 ‘마음이 통하는 무리들이 일정한 규약에 의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틈틈이,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시를 짓고 즐기는 모임’이라 정의할 수 있는 詩社는 ‘同人親也’라는 周易의 해석처럼 대체로 몸담고 있는 그 時代에 대한 인식이 같아야 하고, 더불어 노니는 무리들과 친화, 협력하여야 하며, 문예사조상 같은 선상에 놓임을 전제로 하는데,⁴⁾ 보통 詩社의 연원은 東晉의 穆帝 永和九年(353) 三月三日에 당시의 名士 42명이 浙江省 紹興縣에 있는 蘭亭에 모여서 曲水에 잔을 띄워 잔치를 베풀며, 시를 지어 읊던 ‘蘭亭會’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 詩社를 본받아 우리나라에도 고려조의 嗜老會, 嗜英會, 竹林高會 등의 詩社가 있었고, 조선조에 와서도 상층계급에 의해 맥을 이어 오다⁵⁾ 조선 中期에 이르면 문학적 소양을 지닌 중인 이하의 위향인들이 그들의 소외감과 신분에 대한 불만 및 문학적 소질의 발현을 목적으로 함께 모여 시를 읊조리게 되었고, 마침내 양반사대부들의 옹호속에 詩社로 정착되었는데,⁶⁾ 委巷詩社의 첫 물꼬를 연 것이 바로 村隱의 枕流臺를 중심으로 문학활동을 전개한 枕流臺詩社로 村隱 자신도 자신들의 모임이 ‘蘭亭會’ 보다 낫다고 자부하고 있음을 그의 문집 곳곳에서 볼 수 있다.

-
- 4) 詩社(詩會 또는 同人)에 대한 정의로는 • 詩社란 시를 짓고 즐기는 시인들의 단체 (정후수: 전계서. p. 247), • 詩社는 같은 동지끼리 일정한 규약에 의하여 결성된 집회(金彰顯: ‘일상생활, 의식주’, 한국민속대관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6. 30. p. 116), • 同人與人同 與人同者 物心歸焉(周易, 序卦傳)
- 5) 鄭景柱는 조선후기 향촌시단을 이야기 하면서 양반후예임을 과시하기 위한 이들 시사의 모습이 ① 科擧준비를 위한 문학·수업의 장, ② 鄉中 長者들의 여가의 場 ③ 문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기행중의 詩帖남김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鄭景柱: ‘조선후기 鄉村詩壇의 詩社결성과 그 의미’ 부산한문학연구 제5집, 부산 漢文學會, 1990. 12. 25. p. 238.)
- 6) 정옥자는 양반 사대부들의 옹호 이유로 ① 신분에 대한 불만이 체제부정의 극한 상황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숨구멍을 터주는 의미에서, ② 양식을 가진 사대부들의 시대적 대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들고 있다. (‘조선후기 漢文學思潮史研究’, 韓國史學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p. 174~175)

枕流臺詩社의 활동무대인 枕流臺의 명칭에 대한 기존연구가 全無하므로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보면, 그 語源은 다음과 같은 여러 文人의 글에 잘 나타난다.⁷⁾

“所謂枕流臺者 其名固已不凡 隱然有洗耳自潔之意”(任叔英, ‘枕流臺記’)
 “淨業院之澗 有曰劉生者 買泉石一區 累土石而爲臺 名之曰枕流 以寓巢父洗耳之意”(金玄成, ‘贈枕流主人序’)

‘枕流’는 村隱 자신이 自號한 것으로 대체로 ‘洗耳之意’임을 알 수 있다. ‘洗耳之意’는 堯임금 때의 高士였던 許由가 堯임금이 자신에게 禪讓하겠다는 말을 듣고, 귀가 더러워졌다 하여 귀를 냇물에 씻었다는 故事에서 나온 말이고, 巢父 역시 當代에 許由와 더불어 巢由라 불리울 정도로 산속에 숨어 世利를 돌보지 않고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人物로서 世間의 名利名聞을 貪하지 않는 高결한 생활자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枕流’의 유래는 오히려 晋書에 등장하는 孫楚의 ‘漱石枕流’에서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晋의) 孫楚의 字는 子荆인데, 문장의 재주가 뛰어났다. 젊어서 은거하고자 하여 친구 王濟에게 마땅히 ‘돌을 베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을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벤다’고 잘못 말해 버렸다. 濟가 ‘흐르는 물은 가히 벨수 없고, 돌로 가히 양치할 수 없다’고 하매, 孫楚가 가로되, ‘흐르는 물을 베는 까닭은 귀를 씻고자 함이요, 돌로 양치하는 까닭은 그 이빨을 갈고자 함이다’라고 대답하였다. (孫楚字子荆 才藻卓絕 少時欲隱居 謂王濟曰 當云欲枕石漱流 誤云漱石枕流 濟曰 石非可漱 楚曰 所以枕流 欲洗其耳 所以漱石欲礪其齒)⁸⁾

이와 같은 사실은 雙泉 成汝學이 준 五言古詩 ‘寄枕流主人’에 대한 村隱 자신의 次韻詩 가운데 ‘장차 이 몸은 속세의 티끌을 벗어나 시내 흐르는 대에 누워 귀를 씻고자 하네…… 입을 양치질 하려 물줄기를 찾아 마침내 낚시대 드리우고 바위 외진 모퉁이에 앉았네 (將身脫塵網洗耳臥溪臺…… 口尋泉脈垂竿坐石隈)’라는 詩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

결국 村隱은 孫楚의 ‘所以枕流 欲洗其耳’라는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巢由와 같이 세간의 명리명분을 떠나 山水의 아름다운 경치속에서 고결한

7) <村隱集> 卷之三.

8) 晋書, 世說排調篇.

9) 劉希慶: ‘次寄枕流主人’, <村隱集> 卷之三.

닛을 기르며 은둔하는 생활을 흠모하는 뜻으로 ‘枕流’라 이름했다고 볼 수 있다.

2. 枕流臺의 位置

일반적으로 詩社의 명칭은 蘭亭을 중심으로한 詩人들의 모임을 ‘蘭亭會’ 또는 ‘蘭亭詩社’라 불렀던 것처럼, 어느 특정지역의 이름을 따오거나 어떤 한 인물의 號를 빌어 命名되었는데 前者의 예가 千壽慶의 집인 松石園을 배경으로 성장한 松石園詩社(1786)와 청계천 하루로부터 여섯번째의 다리인 廣橋의 別稱인 六橋를 중심으로 한 六橋詩社(1870)이고, 後者의 예로는 斐然이 號인 張之琬을 중심으로 성장한 斐然詩社가 있다. 枕流臺詩社도 村隱의 枕流臺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나 지금은 그 자취를 살필 수 없는 까닭에 그 위치를 문헌에 의존하여 살필 수 밖에 없다.

“長安之北村 有淨業院 地僻近山 有清泉一條 出巖洞間 買其地居之” (柳夢仁, <傳>)

“家在淨業院下流俗稱院洞 門前溪水清澈 甃石爲臺 名曰枕流” (南鶴鳴, <行錄>)

“淨業院洞 在昌德宮之西 林壑深邃 其中洞水出焉 有夷曠肅散之致” (芝峰集, 21, 枕流臺記)

위의 기록들을 간추려 보면 枕流臺의 위치는 淨業院 아래 昌德宮 서쪽 院洞이라 볼 수 있다. 淨業院은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려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朝鮮朝에 女僧들이 거처하던 곳이자 뒤에 왕의 후궁들이 거처하던 곳이었다. 村隱의 詩에도 ‘尼院暮鍾’이란 제목의 漢詩가 보인다.

“洞裏春晴雲捲遲	·	동중에 봄날 개이고 구름 천천히 걷히는데
崢嶸寶殿接村籬		높고 큰 불전이 마을 울타리에 이어 있네
暮鍾搖落前峰外		저녁 종소리 멀리 울려 앞산 밖으로 떨어지니
知是比丘參佛時		비구니들이 불전에 참배하는 때임을 알겠네”

枕流臺의 위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村隱은 枕流臺를 중심으로 한 遠近의 二十景을 정하고 ‘枕流臺二十詠’이란 시를 짓기도 했는데, 그 제목만 살피면 다음과 같다.

- 北岳丹楓 • 南山翠靄 • 又溪院紗 • 鵝巖採樵 • 尼院暮鍾 • 天壇曉磬
- 三山暮雨 • 萬井炊煙 • 上林琬月 • 御苑賞花 • 花階接舞 • 柳市鶯歌
- 古井秋螢 • 新風酒旗 • 星嶺長松 • 曲城殘照 • 弼峰晴雪 • 御溝紅葉
- 西溝紅纓 • 東澗採春

이 가운데 〈尼院暮鍾〉은 淨業院의 저녁 종소리를 말하고, 〈御溝紅葉〉은 가을철 단풍잎이 御溝 즉 宮中 錦川橋 도랑으로 떠내려감을, 또 〈又溪浣紗〉는 桂洞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昌德宮 後苑 高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서로 모이는 곳에서 부녀자들이 빨래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金龍國은 枕流臺의 舊址를 보다 상세하게 淨業院 아래 시내가 흐르는 계곡 옆, 昌德宮內 錦川橋의 上流部分이라 추측했다.¹⁰⁾ 불행히도 이 枕流臺가 현재 實在하지 않는 까닭은 孝宗6년(1655), 겨울에 王이 대신과 備局 堂上 諸臣을 引見하고 莊烈王后(仁祖繼妃)를 위하여 弘文館 북쪽 欽敬閣 터에 萬壽殿을 지으면서 남는 땅이 없어 完平 李元翼(1547~1634)의 집과 함께 끊기어 들어가 都摠府가 되었기 때문인데, 南鶴鳴의 〈行錄〉에 의하면 村隱이 손수 심었던 盤松만이 외로이 그 자취를 전해주고 있었다 한다.¹¹⁾

3. 枕流臺의 建立時期

枕流臺詩社를 具滋均은 “不失聲韻即劉與白大鵬輩已是已 當時號爲風月香徒”라는 李植의 〈跋〉을 근거로 ‘風月香徒 詩壇’이라 命名하였지만, 筆者는 前揭論文에서 이후에 형성되는 詩社들도 대개 委巷詩人들로 구성되어 있어 風月香徒들의 모임이라 부를 수 있는 보편성을 띠고 있으므로 그리 합당한 용어가 아님을 밝힌 바 있고, 실제로 弼雲臺를 중심으로 성장한 後期 委巷詩人들을 ‘弼雲臺風月’이라 불렀고, 그 詩壇의 盟主를 風月主라 불렀다는 사실이 그 例證이 될 것이다.¹²⁾

枕流臺의 건립시기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詩社의 결성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최초의 委巷詩社의 발생시기를 논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10) 金龍國: ‘劉希慶과 枕流臺’, 향토서술, 제37호, 1979. 12. pp. 66~77.

11) 孝宗朝 構萬壽殿 闕中無餘地 枕流臺完平宅斥入爲都摠府 盤松至今猶在(村隱集, 卷之二, 〈行錄〉). 그 외 萬壽殿과 관계된 자료로는 孝宗實錄 孝宗 6년 11月 癸卯, 12月 癸丑, 7年 正月 甲午, 7月 己巳, 8月 己卯, 10月 壬午 등이 있다.

12) 鄭玉子: 前揭論文, pp. 176~177.

문제인데, 그 동안 學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선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록 개괄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그 건립시기에 대한 견해로는 대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이전으로 보는 견해와 그 이후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먼저 前者의 견해는 허경진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는 劉希慶, 白大鵬 등과 같이 풍월을 읊던 서민들을 ‘風月香徒’라 불렀다는 기록을 들어 이를 風月香徒詩壇이라 命名하고, 白大鵬이 임란 때 전쟁터에서 죽었음을 고려할 때 임란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¹³⁾ 그러나, 이는 엄밀하게 말하여 침류대의 건립시기에 대한 연구라 보긴 힘들다.

다음으로 後者, 곧 임진왜란 이후로 보는 견해는 金龍國, 鄭後洙, 朴天圭 등 거의 대부분의 論者들이 동조하고 있는데, 우선 金龍國은 柳夢仁의 〈傳〉을 중심으로 白大鵬이 죽은 뒤 村隱의 나이 50세 정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특히 본격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枕流臺에서의 생활을 영위한 것은 劉希慶이 정유재란 때 증전을 호위하여 황해도 수안까지 갔었던 점을 고려하여 1597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¹⁴⁾

鄭後洙는 17C初에 枕流臺가 만들어져 白大鵬과 함께 노닐었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1600년 이후임을 밝히고 있고¹⁵⁾ 朴天圭 역시 疎庵 任叔英(1576~1623)의 ‘枕流臺記’가 1609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들어 枕流臺을 만든 것도 1609년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

그러나, 枕流臺가 임진왜란 이후라 논지를 펼치고 있는 이들의 견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다.

먼저 金龍國의 견해는 자신도 직접 의병으로 활동했던 村隱이 枕流臺를 전쟁의 와중에 과연 건립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일어나고, 鄭後洙의 견해는 枕流臺의 건립을 17C로 보면서 임란때 죽은 白大鵬이 그 곳에서 같이 노닐었다고 함으로써 자기논리의 모순에 빠져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그리고 朴天圭의 견해는 단지 〈村隱集〉에 실려 있는 枕流臺에 관한 여러 文

13) 허경진 : ‘풍월향도와 白大鵬’, 목원어문학 5집, 목원대 국어교육과 1985. 9. p. 5.

14) 金龍國 : 前揭論文, p. 58.

15) 鄭後洙 : 前揭書, pp. 254~256.

16) 朴天圭 : ‘村隱 劉希慶의 詩세계’, 한문학논집 6집, 단국한문학회, 1988. p. 114.

人들의 글—李晔光의 ‘枕流臺記(1612)’, 成汝學의 ‘枕流臺記(1613)’, 金玄成의 ‘贈枕流主人序(1613)—이 1600년 이후로 집중되고 있음을 토대로 그 중에서 가장 年代가 앞서는 文人의 글을 중심으로 枕流臺의 건립시기를 추정함으로써, 村隱과 비슷한 신분으로 풍월을 읊조리며 격의없이 잘 지내던 委巷人들의 작품이, 村隱의 文集을 발간한 後孫들의 신분상승 지향으로 실제 <村隱集>에는 이름조차 실려지지 않았던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추정연대의 신빙성은 가늠하기 어렵다.

筆者는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꼼꼼히 살펴 막연하게 枕流臺의 建立時期를 추정하기 보다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枕流臺의 건립시기를 임란이전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洪世泰의 ‘墓誌銘并序’에 나타나는 枕流臺와 村隱, 그리고 朴淳과의 관계이다.

“公爲人 恬靜寡欲 性嗜山水 家在淨業院下流 即其水涯疊石爲臺 名之曰枕流 傍植桃柳數十株 每春時 紅綠照爛川谷 公手唐詩一卷一几一壺 坐臥其中 嘯詠終日以自適 自號村隱 其爲詩閑淡近唐 思菴朴相公極稱之 公卿大夫咸造其臺上 唱和歌詩 競相傳琬世 所爲枕流臺詩帖是也”

朴淳(1523~1589)은 氣一元論者인 花潭 徐敬德의 門人으로서 盛唐의 李白을 높이 받들어 남들로부터 詩가 자못 맑고 높았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로 1580년을 전후로 奉恩寺에서 소위 三唐詩人들을 가르쳤으며¹⁷⁾ 당시 많은 청년들이 朴淳을 찾아 배웠던 점을 고려하면 村隱도 아마 이때쯤 朴淳을 만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朴淳의 생몰연대를 통해 보더라도 임란이전에 만났었고, 또 이의 기록을 文面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枕流臺는 적어도 1580년경에 지어져 있어야 마땅하다.

둘째, 당시 村隱의 명성과 경제능력 등의 고려이다.

南鶴鳴의 ‘行錄’에 의하면 “以禮學見稱 士大夫之喪 必請以執禮 時爲之諺曰 楊禮壽從後門出 劉希慶從前門入”라 하여 宣祖때의 名醫로서 1565년 明宗의 御醫로 明宗의 총애를 받아 通政大夫에 오르고, 허준과 더불어 <東醫寶鑑>의 편찬에 참여하였다가 1597년에 사망했던 楊禮壽 보다 執禮者로서의 村隱의

17) 이종호: ‘孫谷 李達과 三唐詩’.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0. pp. 14~15.

명성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 村隱이 16세부터 서경덕의 門人이자, 최초의 陽明學者인 東岡 南彥經(1528~1594)에게서 禮를 배워 士大夫家 및 國喪에까지 참여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597년 전에 執禮者로서 남보다 경제적 富의 형성이 쉬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東岡 南彥經이 楊州 牧使로 부임하여 靜菴 趙光祖(1482~1519)를 위한 서원을 道峰山에 지었는데, 그 모든 공사 및 살림등을 村隱에게 맡겼던 때가 1573년으로 村隱의 나이 29세 때였고,¹⁸⁾ 그 도봉서원의 동쪽에 枕流堂이 있었다는 기록들을 고려한다면, ¹⁹⁾ 枕流臺는 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1573년 이후 그리 오래지 않은 시대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째, 枕流臺에서의 唱酬詩로 辛應詩의 작품 ‘次寄枕流臺主人’이 보인다는 점이다.

“騷人模寫枕流臺	시인이 침류대를 본떠 읊으니
滿帖驚看錦繡開	두루마리 가득 놀라움게 비단자수 놓았네
白首病生題最晚	흰머리 병이 들어 시 지음이 가장 늦노니
一壺尋勝趁春來	한병 술로 좋은 경치 찾아오는 봄을 좇으려 하네”

辛應時는 號가 白麓으로 1532년에 출생, 1552년 진사, 1559년 庭試文科 급제를 한 뒤 대사간, 홍문관 부제학에 이르렀던 사람으로 1585년에 사망한 인물이다. 辛應時가 枕流臺를 배경으로 그 주인인 村隱에게 시를 지어 바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枕流臺는 적어도 1585년 전에 건립되었다고 보아야 옳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筆者는 枕流臺의 건립시기를 1580년대로 추정한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枕流臺에 대한 여러 文人들의 기록이 1609년 이후로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인데, 필자는 그 이유를 1609년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사신접대를 위한 경비조달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村隱이 이를 잘 처리함으로써 通政大夫를 하사 받게 되어²⁰⁾ 이로부터 士大夫들과의 교류가 더욱 빈번해진 결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18) 南鶴鳴：〈行錄〉, 村隱集, 卷之二. ‘東岡爲楊牧 立議創 使君主張經營 文券中 君之姓名尙存’

洪世泰：〈墓誌銘〉, 同上. ‘嘗慕靜菴之賢 道峰書院之創也 公實經紀之’

19) 成海應：〈東國名山記〉, 金龍國의 전개논문. p. 77에서 재인용.

20) 南鶴鳴：同上. ‘己酉(1609)詔使之來 將多糜費 而戶曹銀貨蕩蕩 諸宰招君問計 君對曰……館接無缺 朝廷并賞 君及三人 賜階通政’.

결국 村隱은 1580년 경에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枕流臺를 건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委巷人들과 詩社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4. 枕流臺詩社의 構成員

枕流臺詩社의 構成員에 대한 논의는 具滋均이 李植의 〈跋〉에 보이는 風月香徒라는 용어를 들어 이를 風月香徒詩壇이라 命名하고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晩年에 北村의 淨業院上 地僻近山 清泉溪壑을 이루는 곳에 복숭아와 버드나무를 심어 이것을 枕流臺라 命名하고 白大鵬, 朴繼姜, 崔奇男, 朴枝華, 鄭玉瑞, 朴仁壽, 權千同, 孔億健 등과 같이 모여 酬作詩飲하여 풍류운치를 극하니 詩人이 이를 風月香徒라 칭하였다.”²¹⁾

이에 대해 朴天圭는 그 구성원으로 劉希慶, 崔奇男, 朴繼姜, 朴枝華를,²²⁾ 허경진은 鄭致, 劉希慶, 白大鵬, 崔奇男을,²³⁾ 鄭後洙는 劉希慶, 白大鵬, 朴繼姜, 魚無迹, 鄭玉瑞, 朴仁壽, 權千同, 孔億健 등을 들었고,²⁴⁾ 筆者는 劉希慶, 白大鵬, 朴繼姜, 崔奇男, 朴枝華, 鄭玉瑞, 朴仁壽, 權千同, 孔億健, 鄭禮男, 金復性, 李精, 鄭致 등을 그 구성원으로 들었는데,²⁵⁾ 이처럼 다양한 構成員을 보이는 이유는, 우선 정확히 枕流臺詩社를 구성했던 構成員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밝힐 수 있는 확실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앞선 연구자의 연구에 의존하거나 當代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자마다 추정하는 식의 연구성과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筆者는 構成員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具滋均으로부터 그 이후의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근거로 構成員을 도출했는지를 살피고, 또 다른 추정을 낳을 위험이 다분히 있긴 하지만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어느 정도 構成員의 中心人物들을 가려내고자 한다.

먼저 앞선 연구자들이 구성원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었으리라 여겨지는 자

21) 具滋均: 前揭書, p. 219.

22) 朴天圭: 前揭論文, p. 94.

23) 허경진: < >, p. 6.

24) 鄭後洙: 前揭書, p. 254.

25) 韓泰文: 前揭論文, p. 23.

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世有魚無迹朴繼姜鄭玉瑞 以辭章名 徐起朴仁壽權千同孔億健 以學行稱 當時士大夫 多假之諛色 不以賦隸視”〈傳〉

“數十年來干戈刀鉞 衣冠利喪憔悴 翁之徒亦皆夭殞煙埋 非復榮世氣象 而翁獨享壽 擅名爲諸公所稱”〈跋〉

“喜爲詩多有佳句 與書吏白大鵬 齊名併稱一時”〈行錄〉

“於于柳夢仁云 徐起朴仁壽權千同許億健 以學行稱 劉希慶白大鵬 以詩文名 惟徐起劉希慶有聞 餘子不知爲何人 此類之煙沒無傳 實可惜”〈逸士遺事〉

“白大鵬字萬里……常與鄭樸軒劉村隱 俱以詩聞於世”〈里鄉見聞錄〉

이와 같은 기록들은 대체로 村隱을 중심으로 더불어 노닐던 인물들을 드러내고 있는 편인데, 특히 村隱의 벗들이 임란을 고비로 많이 세상을 떠났음에 근거를 두고 구성원을 밝히고 있는 듯 하다. 과연 이러한 인물들이 모두 활동적인 구성원이었는지 의문이 가지만 그 중 朴繼姜, 魚無迹 등은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

먼저, 朴繼姜은 號가 市隱으로 처음엔 商賈로써 경제적 富를 누렸으나 40세까지 글을 몰라 어떤 종으로부터 무안을 당하고는 글을 배울 것을 결심, 문을 닫고 책을 읽어 마침내 시를 짓는 구상이 크게 성취되어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40文章이라 불렀다고 한다.²⁶⁾

그런데 기록상에 나타나는 그의 교유관계를 살펴 보면,

“冲庵金文簡公淨 與之唱酬”〈昭代風謠〉

“近來詩人朴繼姜有能詩聲 中廟改玉之初 陪名士遊彰義門外 得句……姜木溪嘗與同登木杳山呼韻使賦詩”〈樺官雜記〉

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 기록만으로도 朴繼姜을 그 구성원으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昭代風謠〉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우선 冲庵 金淨과 더불어 시를 읊조렸다고 한다. 金淨은 조선 中宗때의 儒學者로서 조광조와 더불어 至致主義의 實現을 꿈꾸다 趙光祖와 함께 己卯土禍(1519)로 賜死되었던 人物로 그 生歿

26) 劉在建:〈里鄉見聞錄〉, 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74. 11. p. 252.

‘朴繼姜號市隱有詩名 冲庵金文簡公與之唱酬 世傳經姜家富而不學年至四十 貌美而不識丁一日過通衢有一 以一札示之曰 此是何處 所傳繼姜恥其不知 言 愜愜不暇 視而非笑繼姜乃發 即至家 閉門讀書類年 文思大祝 時稱四十文章’

연대가 1486~1521년인데, 朴繼姜이 詩를 터득한 때가 43세 정도로 본다면 金淨이 사망한 그 해에 詩를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生年은 1479년이 된다. 또한 中宗改玉의 初에 士大夫들과 彰義門 밖에서 시를 지으며 노닐었다고 하는데, 改玉이란 法을 고쳐 시행함을 일컫는 말로 中宗의 在位기간이 1506~1544년으로 改玉의 初는 적어도 〈經國大典〉, 〈大典續錄〉을 印頒한 1509(中宗 4年) 정도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때를 그의 나이 43세라 본다면 역시 그의 生年은 1467년까지 소급이 가능하다. 또한 姜渾과 더불어 木菴山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에서도 木溪 姜渾의 生歿연대가 1464~1519년을 고려하면 그의 生年 역시 1477년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朴繼姜을 재검토하면 그 탄생시기가 대략 1470년대로 枕流臺詩社 형성기인 1580년대와는 적어도 110년의 간격이 있으므로 그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

魚無迹은 成宗, 燕山君 연간에 官人으로 현달했던 魚世謙과 魚世恭의 재종 형제간으로²⁷⁾ 父系는 土族이나 所生母가 官婢였기에 김해에서 官奴 노릇을 하다가 천한 신분은 免하게 되었지만 탐관오리들의 失政을 詩로써 신랄하게 풍자하게 됨으로써 쫓기는 신세가 되어 流浪하다 어떤 驛舍에서 客死하였던 人物이다. 그의 詩는 〈續東文選〉에 실릴 정도였는데 특히 ‘流民嘆’, ‘斫梅賦’와 같은 詩는 하층민이 아니고서는 갖추 수 없는 진솔하고 절실한 내용을 수식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그를 枕流臺詩社 構成員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그는 燕山君 7年(1501), 7月, 金海에서 長文의 상소를 올려 자기는 천민이므로 벼슬할 생각은 없지만, 옛말에 집이 위에서 새는 것을 아래에서 안다는 말이 있듯 잘못된 현실을 누구보다 바로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民生의 보호, 君主의 자세확립, 비판적 언론의 창달을 소망하였지만, 목살되고 말았다는 기록이 전한다.²⁸⁾ 이때가 약 30세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역시 枕流臺의 건립시기와 거의 백년의 차이를 보인다.

둘째, 그와 재종형제 관계에 있던 이들과의 生歿年代를 통한 비교이다.

魚世謙은 成宗代에 奏聞使가 되어 明나라와의 외교에 큰 공을 세웠고, 燕

27) 林煥澤: ‘魚無迹의 詩와 洪吉童傳’, 韓國漢文研究 第3-4輯, 韓國漢文學硏究會, 1979. 12. 25. p. 10.

28) 朝鮮王朝實錄. 燕山君七年, 辛酉七月 乙亥條.

山朝에 이르러 左議政이 되는 등, 조선초기의 名臣으로 그 生歿年代가 1430~1500년이였다.

동생 魚世恭 역시 1467년 李施愛의 亂을 평정하여 명조판서가 되고, 右參贊에 이르렀던 조선초기의 名臣으로 그 生歿年代가 1432~1486이다. 따라서 이들과 재종간이었던 魚無迹도 이에서 결코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無迹이 賤妾子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440~1510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魚無迹은 枕流臺詩社의 構成員이 될 수 없는데, 이를 그 構成員으로 넣은 論者는 아마 柳夢仁의 〈傳〉에 나타난 기록을 비판없이 수용하였거나, 아니면 〈村隱集〉 卷之三의 唱酬詩에 號가 魚適인 사람이 疎菴 任叔英(1576~1623)의 ‘寄枕流主人’에 次韻한 七言絶句 2수를 魚無迹의 作品으로 誤認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견해 중에서 확연히 그 構成員으로 보기 어려운 인물로는 朴繼姜, 魚無迹 정도이고, 대체로 나머지 인물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枕流臺詩社의 構成員들로 볼 수 있다.

우선 枕流臺詩社 構成員들 중 대체로 나이에 있어 한 세대 이상의 간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대개 서경덕의 門人으로서 村隱의 스승인 남언경과 박순의 벗이기도 하여 오히려 枕流臺詩社의 諮問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로 徐起, 朴枝華가 있다.

徐起(1523~1592)는 구자균에 의해 宋翼弼, 朴枝華와 함께 ‘委巷三儒家詩人’으로 命名되었던 인물로, 비록 忠謙 沈悅의 노비였으나, 심열이 면천, 6세에 시를 짓기 시작, 어린 나이에 李之函에게 사사하여 儒·佛·道를 두루 섭렵하여 마침내 많은 文士들과 두루 교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歎詩’라는 詩에서 그는 옛 聖人은 짐승의 모습인데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선비들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통렬히 비난하기도 했는데,²⁹⁾ 나중에는 지리산에 들어가 많은

2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1987. 9. 30. p. 404. 조동일은 徐起가 천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사립에서 인정하고 존경하기조차 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된 이유를 조선 왕조의 신분 차별은 혈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지만, 성현의 도리를 돈독하게 실행하면 상승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해야 합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p. 403)

後學들을 배출, 1751년에 德郎行司憲府持平을 特贈받았다.³⁰⁾ <村隱集>엔 그의 교유를 보이는 ‘佛頂臺別徐左郎時白大鵬從之’라는 七言絶句 1수가 전한다.

“有客清秋跨大鵬 飄然直上碧雲層 一句踏盡金剛界 還向東溟過鬱陵	맑은 가을하늘에 대봉을 걸터 앉은 손이 있으니 가볍게 곧장 푸른 구름층 뛰어 올라 한 순간에 금강산을 다 밟고서 울릉도를 지나 동쪽 바다 향해 나아가누나”
---	---

朴枝華(1513~1592)는 號가 守菴으로 花潭 徐敬德에게 사사하고, 牛溪 成渾과 道學을 論하여 儒佛仙을 겸비한 學者라 추앙되었다. 일찌기 吏文學官이 된 일이 있으나, 곧 사직하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병이 몰려 오자 ‘백구는 원래 물에서 자는 法, 무슨 일로 남는 슬픔이 있겠는가 (白鷗元水宿 何事有餘哀)’라는 杜律-詩를 남기고 돌을 안고 물 속에 빠져 죽었다 한다.

徐起와의 교유는 매우 친밀하였는데, 五言律詩로 된 ‘奉寄徐學長起’ 1수와 산문으로 된 ‘孤靑居士徐公墓碣銘并序’가 보인다.³¹⁾ <村隱集>에는 村隱이 금강산 여행을 다녀와서 守菴을 인사차 방문하였더니 守菴이 하늘의 음악을 들었느냐고 묻길래 지었다는 ‘自金剛來謁守菴朴公枝華 則曰摩訶衍聞天樂乎以詩答之’라는 五言古詩 1수가 전한다.

“涼風過洞門 萬籟生秋壑 高低調五音 彷彿聞天樂	산들바람 굴 입구를 스치니 은갓 소리 골짜기에서 생겨 높낮이가 오음과 서로 어울리니 마치 천상의 음악을 듣는 듯 하노매라”
-----------------------------------	---

이들이 대체로 村隱의 스승과 벗으로서 枕流臺詩社의 諮問役割에 충실했다면 나머지 人物들은 가히 주도적인 構成員으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임란 이전 초창기의 구성원과 임란이후 재건기의 구성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임란이전 초창기의 構成員으로는 劉希慶, 白大鵬, 鄭致, 李精, 鄭玉瑞, 金復性, 權千同, 孔億健, 朴仁壽, 鄭禮男 등이 있다.

劉希慶(1545~1636)은 字가 應吉, 號가 村隱으로 미친한 신분으로 태어나

30) 高時彥: <昭代風謠> 卷九, 附錄詩話, 亞細亞文化社 영인, 1980. 7.

31) 朴枝華: <守菴先生遺稿> 卷一·二. 서울대 규장각본.

어릴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13세때 아버지를 여의고 3년의 墓幕生活을 함으로써 南彦經에게 알려져 예를 배웠는데, 특히 喪制에 밝아 士大夫의 장사 및 國喪에 까지 참여할 정도로 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고 실제 자신이 從軍하는 등 지극한 충성심을 발휘하여 이후 通政大夫(1609), 嘉善大夫(1623), 嘉義大夫(1631) 등을 하사 받았고, 죽어서는 資憲大夫 漢城府判尹에 追贈되었다. 무엇보다 村隱은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枕流臺를 만들고 그 곳에서 白大鵬을 위시한 委巷詩人들과 더불어 시를 읊조렸던 대시인으로 枕流臺詩社의 실질적인 盟主라 할 수 있다. 그의 詩는 陳師道나 黃庭堅 같은 宋詩風을 배우지 않고, 李白과 杜甫의 唐詩風을 숭상하여 내용이 閑淡하고 맑고 고상하며, 詩의 형식에 있어서도 五言 · 六言 · 七言絶句, 五言 · 七言古詩, 五言 · 七言律詩, 五言排律, 三五七言 雜體詩 등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白大鵬(? ~ 1592)은 字가 萬里, 典鑑司의 노예로 詩書 飲酒에 능하고 재능이 썩 뛰어나 방일하고 꾀꾀하여 굳세고 의협한 기상이 있었다. 일찌기 遞兒職인 司諭을 지냈는데, 그가 지은 詩가 대체로 孟郊와 價島의 곤궁하고 야위며 활기가 없고 담담함을 배운 까닭에 권필(1569~1612)이 매번 晚唐을 배우는 자들을 보면 반드시 司諭體라 놀렸다 한다. 그는 詩文을 잘 하였고, 특히 許筠의 집안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1590년 通信使인 正使 황윤길, 副使 김성일, 書狀官 허성을 따라 일본에 가서 詩로써 이름을 날리고³²⁾ 임란이 일어나매 일본사정을 잘 안다 하여 巡邊使 李鎰(1538~1601)을 따라 전쟁터에 나서게 되었는데, 상주에 이르러 싸우다 죽게 된다.³³⁾ <里鄉見聞錄>엔 “常與鄭樸軒劉村隱 俱以詩文於世”라 하여 劉希慶, 鄭致와 막역한 사이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詩는 전란으로 거의 전해지지 않고 지금은 <昭代風謠> 등에 七言絶句

32) 上田正昭: ‘朝鮮通信使와 아마모리 호오슈’, 朝鮮通信使, 동호서관, 1982. 11. p. 44.

그는 오사카 懷德堂 學主였던 나가이세끼젠(1702-1804)의 <草茅危言>의 기록을 인용하여 당시 조선정부에서는 정치적 측면보다 문화적 측면의 교류를 더 중시, 詩文에 특별히 능한 인사들을 선발해서 통신사의 대열에 들게 했고, 그 결과 통신사 일행이 머무는 숙사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과 서로 시를 창수하며 한편의 시를 얻으면 가보와 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다.

33) 柳成龍: 懲感錄. 韓國思想大全集, 良友堂. p. 265에 상주에서의 전투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백대봉의 卒年時期는 1592. 4. 24이 된다.

‘醉吟’ 1수와 五言律詩 ‘秋日’ 등 2수만이 전할 뿐인데 ‘醉吟’은 劉希慶의 七言絕句 ‘華岳晴風’에 화답한 것으로 여겨진다.

“秋天生薄陰	가을 하늘에 얇은 구름 끼어
華嶽影沈沈	화악산에도 그림자 드리웠네
叢菊他鄉淚	한 무더기 국화꽃은 타향살이 내 눈물
孤燈此夜心	외로운 등불은 오늘 밤 내 마음일세
流螢隱亂草	날아다니던 반딧불은 잡초 속에 숨고
疎雨落長林	성긴 빗방울은 숲에 떨어지는데
懷侶不能寐	벗 그리워 잠 못 이루매
隔窓啼怪禽	이름 모를 산새만 창 밖에서 우짖노나”

鄭致(? ~1623)는 子가 可遠, 號 櫟軒으로 漢川人이다. <里鄉見聞錄>에는 ‘宜廟聞其才藝 特差內司別坐’라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詩는 世間을 초탈한 超俗의 詩思가 잘 묘사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진다. 자식으로는 鄭栢壽가 있는데, 선조 39(1606년) 式年試에 급제하여 內醫院正에 이르렀고 최초의 公東 委巷詩集으로 평가되는 <六家雜詠>의 同人이다. 鄭致의 生歿年代는 어느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아 추론할 수 밖에 없는데, 鄭載崙의 <公私見聞錄>에 의하면 1623년 인조반정의 날에 光海君이 濟用監醫員 鄭栢壽의 집에 피신하였는데, 그때 마침 鄭栢壽가 喪中이었으므로 광해군도 상복으로 바뀌어 입고 숨어 지냈다는 記錄이 있는데,³⁴⁾ 이 喪이 바로 鄭致의 喪이라 본다면 1623년이 그의 사망연대가 된다. 그는 특히 백대봉, 최기남과 친하였는데, 白大鵬을 酒宴에 초대한 ‘對酒招白萬里’가 전한다.

‘我也前身過去僧	전세에 내 몸은 스님이었기에
世間名利視風燈	세상의 명리는 바람앞의 등불로 보네
中心愛矣青從事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맑은 술
何日忘之白大鵬	어느 날이든 잊었으랴 백대봉을
一杜換酒誠小點	한말 술을 고을과 바꾼은 실로 어리석은 것
三杯通道是多能	석 잔 술로 도 통함이 바로 진리라네
邱山有塚君知否	북망산천에 있는 무덤을 그때는 아는가 모르는가
粉骨生苔無醉朋	뼈 부서지고 이끼 덮이면 취할 벗도 없는 것을’

李精은 <昭代風謠>에 ‘號 杏村’이란 기록 밖에 보이지 않고 나이 순서로

34) 李朝實錄：도서출판 한국인문과학원, 1986. 3. 5. p. 824. 卷187. 光海 15年 3月 條. “鄭栢壽告王匿其處……栢壽方服喪 王取喪冠麻衣服之 欲使人不覺”.

기록된 〈海東遺珠〉엔 그의 詩가 鄭致의 바로 앞에 놓인 것으로 보아 劉希慶, 白大鵬, 鄭致 보다는 조금 연장자였던 같다. 그의 작품으로는 五言絶句 ‘客中贈舊友’ 1수와 七言律詩 ‘中秋無月歎示友生’ 1수 등 2수가 전한다.

鄭玉瑞는 〈昭代風謠〉에 단지 ‘中世有 鄭玉瑞 以詞章名’으로, 〈芝峰類說〉에는 ‘鄭玉世賤人也 作烏江懷古’라 하여 그 이름조차 鄭玉世로 기록되어 있는데, 작품으로는 항우를 생각하며 지은 七言律詩 ‘烏江懷古’가 1수 傳할 뿐이다.

金復性은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傳하지 않고 〈昭代風謠〉에 이름과 작품으로 五言絶句 ‘曉行’, ‘石城途中’ 2수 만이 傳할 뿐이다.

權千同, 孔億健, 朴仁壽 등은 〈村隱集 傳〉의 기록을 제외하곤 다른 곳에서 살필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였으나, 필자가 조사한 바 朴仁壽는 〈於于集〉, 附於于野談, 奴婢篇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朴仁壽者知中樞申撥之奴也……仁壽盡舍去賤業 力學好善 所學大小學家禮近思錄等書無多 而操行卓異 非禮不行 與小主申應渠 逐處土朴枝華 讀書于皆骨山 當時士流重之……萬曆壬辰歲 倭寇大至 仁壽曰國破家殘老夫安之 誓死于此 遂鳴琴不去 爲僞所害 時人憐之”³⁵⁾

朴仁壽는 申撥(1523~1616)의 노비였다. 申撥은 조선 宣祖·光海君때의 文臣으로 80세에 堂上에 올랐던 인물이다. 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아 위의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면, 그는 申撥의 아들 申應渠(1553~1623)와 함께 朴枝華의 門下에 들어가 글을 배운 까닭에 당시 선비들이 그를 重히 여기게 되었다고 하니 대개 朴隱 정도의 동년배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 그의 作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鄭禮男(?~1612)은 字 子和, 號 西疇로서 醫學教授였다. 宣祖 15年(1582) 壬午試에 급제하여 內醫院正에 올랐고, 허준과 함께 東醫寶鑑, 醫方新書의 편찬을 하였다. 李朝實錄 卷76, 宣祖 29年 6月 17日條에 사헌부에서 그의 파직을 간언하자 宣祖가 정예남을 두둔하여 파직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고,³⁶⁾ 光海君은 어릴 때 그에게 치료를 받아 나았던 관계로 1612年 8月 25日 그가

35) 柳夢仁：於于集. 景文社. 영인본. 1979. 3. 20. pp. 37~38.

36) 李朝實錄：前揭書, p. 529. “司憲府啓曰……尙衣主簿鄭禮男 本以微賤之人 加有悖戾之行 不可齒在衣冠之列請命罷職……答曰鄭禮男論功除職”.

죽자 葬事를 親功臣의 例로 하라고 교시하였을 정도였다. 詩로는 五言古詩 ‘過齋候墓’, ‘與諸友北麓避暑’, ‘田單墓’ 3수가 傳하고 五言律詩 ‘鮑石亭’, ‘燕京人日用杜工部韻’ 등 2수, 五言古詩 ‘挽曹生員以楨’ 1수, 七言律詩 ‘送朴立之隨東州倅之行’, ‘送李子仁赴嶺南’ 2수 등 총 8수가 전한다.

앞서 소개한 구성원보다 時代上으로 훨씬 뒤지는 人物로 龜谷 崔奇男(1586~1668)이 있다. 崔奇男은 字가 英叔으로 東陽尉 申翺聖(1588~1644)家の 서리로 일찌기 시를 깨달아 숙종조 이전 委巷詩人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의문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나이로 보아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구성원이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인데, 이는 村隱이 그에게 보낸 ‘贈崔英叔’에서 실마리를 풀 수 있으리라 본다.

“北里西村隔路岐 停雲入眼倍相思 新涼正合孤眼處 霧景還宜散步時 萬壑風光供彩筆 中天月色照吟髭 何當更作騷壇會 共對雲山改舊詩	북쪽 마을은 서쪽 촌락을 경계로 갈리어 멈춘 구름 눈에 들어오니 그리움만 더하네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외로운 잠자리에 알맞고 맑게 갠 경치는 도리어 산책하기 알맞네 여러 골짜기는 채색에 쓰는 붓으로 어우러졌고 하늘 한복판의 달빛은 괴로이 읊조리는 나를 비추니 어찌 마땅히 시단을 다시 만들어 함께 구름걸린 산을 대하고 앉아 옛 시를 고치지 않 으라”
---	--

즉, 村隱은 壬亂으로 많은 벗들을 잃어 버렸고, 따라서 枕流臺詩社의 운영도 얼마간은 지속이 어려웠을 것이며, 시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원의 보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당시 익히 교류하던 申欽의 아들 申翺聖家の 서리로 詩名이 있던 41세나 年下인 崔奇男을 유입함으로써 詩社의 부흥을 꾀하였을 것이며, 崔奇男 역시 村隱의 부름에 응함으로써 枕流臺詩社의 同人이 되고, 당대 제일의 委巷詩人들—당시 살아있던 村隱, 鄭致, 鄭禮男—및 더불어 노닐던 공경대부वाद도 교류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이다. 村隱과 崔奇男이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村隱의 경우 枕流臺詩社의 다른 시인들에게 和答한 詩는 보이지 않으나, 유독 崔奇男에겐 七言絶句 ‘次崔英叔奇男韻’ 1수와 위에 인용한 七言律詩 1수 등 2수의

37) 上同. 光海君日記 卷56. 4年 8月. 丙戌條. p. 512.

“傳曰 御醫 鄭禮男既參功臣 惟未及下批其喪 葬諸事一依親功臣例察爲”

詩를 보이고 있고, 특히 玄翁 申欽(1566~1628)이 고향인 金浦로 돌아갈 때 배웅하며 각각 ‘上申相國欽金浦田里之行’과 ‘奉別申相國田里之行’을 지었던 것으로 보아 村隱은 특히 그를 弟子같이 아꼈다고 볼 수 있다. 崔奇男 역시 村隱에게 ‘武溪安氏莊次村隱韻’과 ‘靈谷枕流臺’ 2수를 남기고 있다. 崔奇男은 村隱 외에 두 선배 詩人 鄭致와 鄭禮男을 무척 따랐던 것 같고 이후 金忠烈, 崔大立, 金孝一 등과 빈번 교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龜谷書堂을 열어 李得元, 林俊元 등과 같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 이들과 그의 자손들—崔承太·承潤, 承胄 三男과 白孝明, 白信明, 金富賢 등 外孫—을 中心으로 전개된 洛下詩社의 發生을 가능케 하여 委巷詩社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枕流臺詩社는 村隱의 枕流臺를 中心으로 村隱을 盟主로 하여 朴枝華, 徐起 등의 자문을 받고 성장하다 임란으로 白大鵬, 李精, 金復性, 鄭玉瑞, 朴仁壽, 權千同, 孔億健 등이 사망하자 기존의 鄭致, 鄭禮男과 새로운 성원인 崔奇男의 보강으로 그 맥을 이어 나갔고, 그 결과 崔奇男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성원의 활동이 눈부시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III. 枕流臺詩社의 文學史的 意義

지금까지의 委巷詩社의 연구는 대체로 18C 이후의 時期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영·정조이후 신분, 특히 中人의 개념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과, 평민의 의식이 서서히 성장되는 시기라는 점 및, 可視的인 집단체로서의 詩社의 모습이 18C이후에 확연히 드러난다는 이유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이전에 엄연히 존재했던 委巷詩社를 무시해 버리고 18C 후반에 이르러서야 委巷詩社가 결성되었다는 잘못된 견해가 거의 우리 委巷文學史에 수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中人’이란 계급, 또는 신분이 18C에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中人’에 해당하는 譯官, 醫員 등의 신분은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해 왔던 것으로 나름대로 사대부와도 다르고, 하층민들과도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양반사대부가 상층계급으로 과거나 승진이 자유로웠다던 나머지 계층들은

한마디로 과거나 승진에 제한이 가해졌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하층계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층계급으로서 詩에 조예가 깊은 이들은 譯官 이든, 醫員이든, 또는 商人이나 奴隸이든 共有의 감정을 읊으며 委巷人으로서 詩社를 자연스럽게 형성했던 것인데, 그 최초의 모습이 바로 村隱의 枕流臺를 中心으로 譯官, 醫員, 商人, 奴隸 신분을 지닌 委巷詩人들이 모여 시를 읊었던 枕流臺詩社였던 것이다. 枕流臺詩社 구성원의 신분이 다양함에 비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詩社들은 대개 中人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玉流溪를 中心으로 모여 살던 서리계층을 주축으로 결성된 것이 玉溪詩社이고, 塾師를 業으로 삼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것이 稷下詩社이며, 1870년대 말 廣橋 부근의 醫譯 中人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것이 六橋詩社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枕流臺詩社는 村隱 劉希慶이 주도한 일개인의 詩社였다기 보다 그 차원을 넘어서 조선중기 위항시인들의 최초의 공동모임체였으며, 특히 이들의 방대한 조직과 눈부신 활동은 委巷漢詩文學의 길을 열어, 이후 이들 구성원과 그 제자들에 의해 다양한 委巷詩社의 결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까닭에 가히 委巷詩社의 母胎라 일컬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V. 要約 및 結論

이상으로 朝鮮朝 委巷漢詩에 있어서 최초의 시사인 枕流臺詩社의 結成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枕流’의 명칭은 孫楚의 ‘漱石枕流’에서 따온 말로 巢由와 같이 世間의 名利名分을 떠나 山水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고결한 德을 기르며 은둔하는 생활을 흠모하여 村隱이 自號한 것이다.

둘째, ‘枕流臺’의 위치는 淨業院 아래, 시내가 흐르는 계곡 옆, 昌德宮內 錦川橋의 上流부분으로 수려한 경치로 枕流臺詩社의 활동근거지가 되었는데, 孝宗朝 萬壽展을 지으면서 그 자취는 전하지 않는다.

셋째, ‘枕流臺’의 건립시기는 枕流臺에서 시를 읊었던 것이 朴淳에게 칭찬 받았던 때와 당시 村隱의 명성과 경제적 능력, 특히 1585년에 사망한 辛應時

의 枕流臺에서의 唱酬詩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580년 전후로 건립되었고, 枕流臺詩社도 비슷한 때에 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構成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中心인물로 알려진 朴繼姜과 魚無迹이 그 生歿年代를 기준으로 살펴 볼 때 결성시기와 거의 11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 構成員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혔고, 따라서, 枕流臺詩社는 徐起, 朴枝華의 諮問을 받아 劉希慶, 白大鵬, 鄭致, 李精, 鄭玉瑞, 金復性, 朴仁壽, 權千同, 孔億健, 鄭禮男 등이 그 構成員이 되어 활동했고, 임란으로 많은 인원을 잃자 崔奇男 등의 보강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 枕流臺詩社의 文學史的 意義는 朝鮮朝 委巷漢詩에 있어서의 最初의 詩社로서 이후 委巷詩社의 다양한 발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가히 委巷詩社의 母胎라 일컬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로써 委巷詩社의 發生은 18C 이후가 아니라 村隱이 活動한 16C말이라는 筆者의 견해를 입증한 셈이 된다. 다만 앞으로 枕流臺詩社의 진정한 文學史的 意義를 명확히 규정지으려면, 그들의 文學世界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委巷人들로 구성된 만큼 뚜렷하게 개인 文集을 지닌 이는 村隱, 守菴, 龜谷 3인 뿐으로 그 총체적 면모의 파악은 다소 어렵겠지만 기존자료의 발굴, 수집을 통해 정리하여 다소나마 枕流臺詩社의 文學世界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 연구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